

漢晉塢壁에 대한 研究

具 聖 姬

(北京大學歷史研究所卒業, 文學博士)

1. 塢壁의 建立과 形式

1.1 塢壁을 建立하게 된 원인

塢壁은 현존하는 地方防衛組織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적인 연원 또한 깊다. 문헌자료로 보면 “塢”와 “壁”은 원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군사조직이다.

戰國時代 말기부터 東漢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으로 사용된 壘壁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많이 있으나, 非政府적인 차원에서 운영된 塢壁의 건립이유는 대부분 大族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 王莽 말년 북방의 기근과 내우외환은 사회 전반에 걸쳐 동란의 상황을 조성하였으며 이 시기에 직면한 豪族과 大地主들은 자기보호를 위해 각자 경쟁적으로 塢壁을 건립했다. 東漢末年에 이르러 막강한 정치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호족들은 광활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기초를 바탕으로 그들은 대량의 “塢壁化”된 莊園을 건립했고, 이와 더불어 의지할 곳 없는 평민들은 塢壁에 기탁하여 大地主들의 賓客이나 徒附로 전락해 塢主 개인의 武裝部曲이나 生產 労動者가 되고 말았다.

塢, 堡, 壁과 壘는 모두 비슷한 형상을 가지

고 있으나 그 형성과정은 漢代地方制度의 파괴 과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漢代의 亭里制는 嚴耕望의 研究에 의하면 亭과 里 사이에 이른바 “聚”라는 것이 있고, 聚는 王莽時代 학교설립을 위해 구획한 향촌조직이며, 일종의 邑落이기도 하면서 漢代 교육행정의 基層單位이기도 했다¹⁾. “聚” 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一族이 기초가 되어 서로간에 긴밀한 혈연관계를 유지했다. 이는 평상시에는 도둑방지를, 전시에는 지역보호를 위해 전투태세를 갖춘 무장조직이었다. 그 결과 塢壁은 전투체계를 갖춘 “塢”와 앞서 언급한 방어체계를 갖춘 “聚”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王莽 天鳳年間 북방의 대기근과 내우외환이 겹쳐, 극도의 사회혼란이 조성되자 지방기총의 향리조직은 파괴되었고, 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비로소 정부차원에서 塢壁을 조직해 지역방위를 시작했다. 그 결과 三浦, 河南, 荆州, 東郡, 魏郡, 清河, 趙郡, 中山國, 南陽, 陳留, 漁陽, 安定, 北地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塢壁이 분포하게 되었다²⁾. 이들지

1) 嚴耕望, 《中國地方制度史》上篇, 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45, 1961, 66-67쪽.

역의 塉壁들은 당시 지방사회의 안정을 위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대부분이 정권건립에 협조적이었다.

東漢政權이 건립된 이후, 광무제는 지방세력을 분산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塉壁의 해체를 도모³⁾하여 당시의 塉壁은 변경지역의 몇 군데만 남았다. 그러나 東漢中期, 姜族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和帝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주동적으로 西北 邊郡지역에 대량으로 塉候를 구축했다. 安帝 永初五年(111年) 魏郡, 趙國, 常山, 中山 등지에 600여개의 塉壁을 구축했으며⁴⁾, 지방의 백성들도 스스로 자위를 위한 무력조직을 갖추어 姜族의 침략을 방어했다. 이와 더불어 內郡의 豪族大姓들 또한 塉壁을 건립해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東漢末年 黃巾의 亂이 터지자 무수한 塉壁이 우후죽순으로 건립되었는데, 그 가운데 董卓 郡塉과 公孫贊의 易京이 가장 규모가 커졌다⁵⁾.

西晉 시기에 永嘉의 난 이후, 關東과 關中지역의 호족들은 더욱 塉壁에 의지하여 외적의 침략을 방어했다. 연이은 전란으로 인해 백성들은 유민이 되었고, 주인없는 수많은 토지들은 豪族들에 의해 겸병이 되었으며, 일반평민들은 생명보존을 위해 폭동의 행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塉堡에 의지해 豪族의 領戶가 되어 豪强地主들의 보호를 받았다⁶⁾. 이들 塉主들은 원래 다수의 宗族部曲을 소유하였으며 의지할 곳 없는 小民을 대량으로 흡수하여 그 지방의 대규모 할거 세력이 되었다. 이 시기에 塉壁의 발전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蘇峻의 세력이 가장 강하였다⁷⁾.

이들 지역의 塉壁은 대부분이 새로 건립되었

2) 金發根, 《永嘉難後北方的豪族》, 中國學術著作獎助會(臺北), 1964, 11-12쪽.

3) 《後漢紀卷4.光武紀》.

4) 《後漢書卷87.西羌傳》

5) 公孫贊의 “易京”据 《三國志·公孫贊》.

6) 益武: 《中國社會政治史》, 臺北, 三民書局有限公司 1962, 第2冊, 16-17.

7) 《晉書卷100.蘇峻傳》, 北京, 中華書局 1974, 2628쪽.

으며, 일부는 漢末, 三國時期에 건립되어 豪族들에 의해 점령된 것이다. 黃河南北의 關中地域은 외적의 침탈이 상당히 심한 곳으로 塉壁을 근거로 한 자위조직은 약 3천여곳에 달했다. 나머지 魏郡, 頓丘 등지에 50여개, 河內 10여개, 新興, 應門, 西河, 太康, 上黨, 上郡 등지에 3백여개, 四川, 江南 지역에도 塉壁을 구축해 방위했다. 당시 塉壁의 수가 많고, 분포한 지역이 넓었다는 역사기록 또한 풍부하다. 심지어 塉壁은 자위방어의 목적 외에 胡人の 군사활동을 견제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이 때문에 五胡君主들은 이들 塉壁 세력을 소멸시키지 못하면, 곧 塉主들과 타협했다. 이상의 내용만으로도 永嘉의 난 이후, 塉壁의 발전된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폭동과 난을 피하기 위해 백성들은 협력하여 塉를 구축하고 壁을 만들어, 평화시에는 농사짓고, 전시에는 방어하며, 자위태세를 갖추었던 것이다.

東漢 이후, 地主의 대토지소유제 및 部曲佃客制의 발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의식형태 또한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는 혈연과 지역을 핵심으로 하는 宗鄉觀念의 발전과 앞서 언급한 “墉壁”이라는 사회집단이 응집하는데 경제적,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1.2 塉壁의 형식

문헌자료나 고고자료를 보면 塉壁의 형식은 지역과 시간 및 각 塉主의 세력규모로 그 형식이 구분된다. 塉壁의 형식은 대체로 樓院式, 城堡式, 樓櫓式, 山間堡壘式 등 여러 종류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塉壁은 2-3 종류의 형식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어 엄격하게 구분짓기가 매우 힘들다. 때문에 본문에서는 주요한 특징에 따라 분류, 설명하였다. 다음은 4종류의 塉壁을 예를 들어 그 특징을 간략히 살펴 본 것이다.

1.2.1 樓院式

이 형식의 塉壁은 城堡式墉壁의 형식인 城

壁, 望樓, 閣樓등의 형식을 갖춘 것 이외한 가장 큰 특징은 뜰안에 3층내지 5층의 높은 望樓를 설치한 것이다. 1970년 초에 甘肅省 武威雷臺漢墓에서 이 종류의 塈壁模型을 발견했는데, 그 모형의 사방에는 높은 벽이 있고, 정면에 대문이 있으며, 문위에는 門樓가 있고 네귀통이에는 2층 높이의 閣樓를 설치했다. 정면을 제외한 기타 삼면에는 모두 두겹의 벽을 세웠고, 그 벽에는 작은 문을 설치했다. 뜰에는 5층의 高層望樓를 설치했으며, 망루의 정면에 창을 만들어 적의 감시와 전투시 사격용으로 사용했다. 門樓와 閣樓 및 각각의 閣樓 사이에는 난간이 있어 서로 연결되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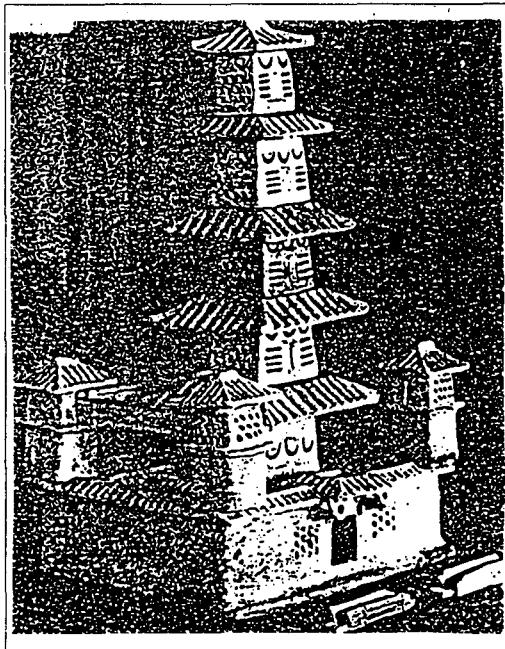


그림 1 威雷臺漢墓에서出土된 陶塈

그밖에 塈壁 혹은 豪族 개인의 武裝과 관계 있는 閣樓등이 새겨진 畫像石은 河南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예를들면 南陽 楊官寺墓 樓閣畫像에 보이는 무기를 든 兵士⁹⁾, 唐河 針織

8 甘肅省博物館:<武威雷臺漢墓>,考古學報1974-2,101-103쪽.
9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河南南陽楊官寺漢代畫像石發掘

廠 樓閣 畫像石의 閣樓에 있는 무기를 들고 감시하는 兵士¹⁰⁾ 및 陝縣 劉家渠墓 三層綠釉陶樓閣의 검을 빼들고 활을 당기고 있는 20여명의 武士等¹¹⁾ 묘 속의 塈壁模型과 壁畫磚, 畫像石에 묘사된 그림들은 바로 墓 주인이 생전에 호족으로써 塈壁과 部曲의 家兵들을 거느렸던 사실을 묘사한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明器들의 연대분포는 西漢末年에서 東漢末期의 것으로 이것은 바로 樓院式 塈壁이 漢代에 계속하여 존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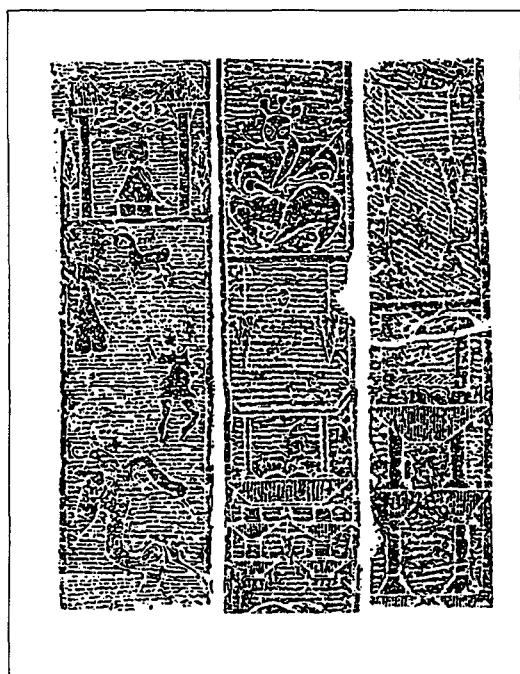


그림 2 楊官寺墓 樓閣圖

- 1 墓門中柱정면
- 2 墓門南側柱북쪽면
- 3 墓門北側柱남쪽면

報告>,考古學報1963-1,116-119쪽.

10周剤,李京華:<唐河針織廠漢畫像石的發掘>,文物1973-6,26-40쪽.

11黃河水渠考古工作隊:<河南陝縣劉家渠漢墓>,考古學報1965-1,138-1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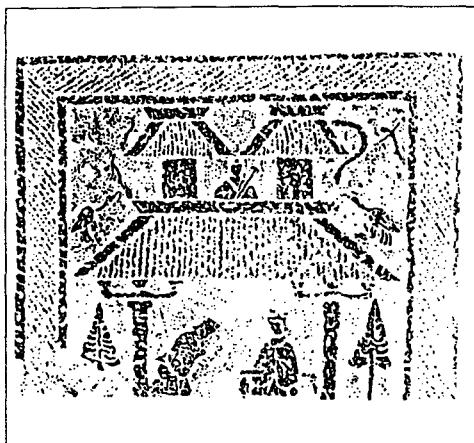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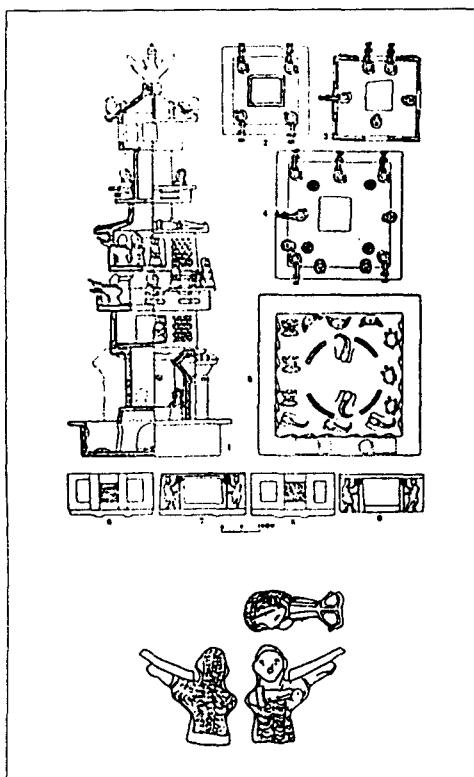


그림 3 唐河 针織廠 漢代 畫像石墓의 人物·樓閣圖



1.정면 2.제3층평좌 3.제1층 4.제2층
6-8 底層좌, 우, 후 삼면 9제2층후문측

그림4 陝縣 劉家渠墓 출토 3층녹유도제누각과 무사

1.2.2 城堡式

城堡式 오벽의 주변에는 높고 두꺼운 城壁이 있으며, 대문위에는 望樓를 설치했고, 塉壁의 네귀퉁이에는 閣樓를 설치했다. 塉壁안에는 크고 작은 가옥들이 있다. 塉壁의 입구에는 일반적으로 병사들이 있고, 望樓式 閣樓안에는 무기를 든 병사가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나무위에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북과 북치기가 있다. 《四民月令》에 기록된 豪強의 莊園建築은 이러한 塉壁과 관계가 있으며, 혹은 이러한 종류의 塉壁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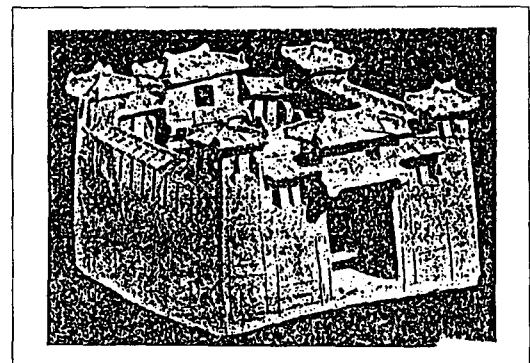


그림5 廣東廣州동물원에서 출토된 漢代의 陶城堡

《三國志·董卓傳》本傳에 「塉高與長安城塙」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董卓의 鄭塉는 城堡式의 塉壁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7년, 考古發掘隊가 廣州 동물원에서 발견한 東漢 章帝 建初元年(76년)의 墓 내부에서 城堡式의 塉壁 모형의 도자기를 발견했다. 이 城堡의 주변에는 높이 치솟은 성벽을 세웠고, 앞뒤 대문위에는 望樓를 세웠으며, 望樓에는 계단을 설치하는 한편, 塉壁의 네귀퉁이에는 閣樓를 세웠다. 또한 塉壁내부에는 단층집이 두채 있고, 집의 측면에는 말 한 마리, 문밖에는 북치기와 무기를 든 兵士가 있는데, 이는 城堡

12邱漢生:〈從“四民月令”看東漢大地主的田莊〉,歷史教學1959-10, 11~15等。

式 塢壁의 기본패턴일 것이다¹³⁾. 1971년, 內蒙古 和林格爾에서 발견된 東漢墓의 벽화에서도 塢壁圖가 출현하는데, 벽화에 그려진 오벽은 정사방형으로 주변에는 높은 벽이 둘러쳐 있으며, 한 귀퉁이에는 閣樓가 있고, 그 옆에는 검은 글씨로 「塢」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것이 塢壁임을 證明하고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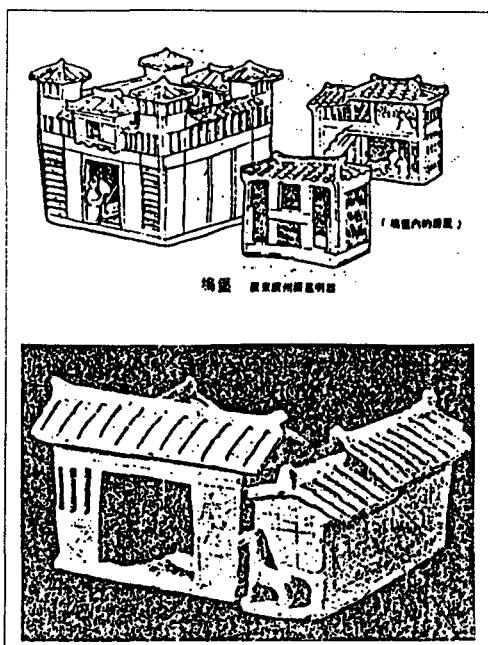


그림6 광동광주동물원에서 출토된 漢代의 陶城堡와 그안에 있던 가옥들

1.2.3 樓櫓式

樓와 櫓가 함께 쓰여진 것은 漢代부터인데, 건축양식의 차이점은 있으나 이 건축물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두 양식이 함께 어우러진 건축물이다. 그 특징은 성위에 세워진 방어용 건축양식이다¹⁵⁾. 樓는 望樓이고 櫓는 望樓

13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廣州動物園東漢建初元年墓清理簡報〉,文物1959-11, 14-18쪽.

14吳榮曾:〈和林格爾漢墓壁畫中反映的東漢社會生活〉,文物1974-1, 27-28쪽.

15胡肇椿:〈樓櫓塢壁與東漢的階級鬭爭〉,考古1962-2, 206-208쪽.

근처주변의 平座이다. 黃河와 長江流域의 각 省에서 樓櫓式 모형의 오벽이 출토되었다. 樓櫓式 塢壁은 2층에서 4층의 樓閣式 건축물이며, 廣州 근교에서 발견된다. 각진 모양을 특징으로 갖고 있으며, 이러한 塢壁들은 당시 豪族地主들이 堡壘式 건축물을 이용해 군사거점으로 삼았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벽은 외부건축과 내부의 가옥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면을 보면 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주변에는 높은 성벽이 둘러쳐져 있고, 앞뒤에 대문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문위에는 門樓가 있으며, 樓의 전후에는 모두 창이 있어 적을 살피고 내려다 볼 수 있게 했다. 오벽의 네귀퉁이에는 각각 사각형의 閣樓가 있으며, 각루의 바깥쪽 양측에는 사각형의 큰 창이 있다. 門樓와 閣樓 및 천정은 모두 四阿式(4개의 마룻대에 지붕을 이은집)으로 만들었다.

塢壁의 외부형태를 살펴보면 성곽의 건축양식을 모방했으며, 그 주요한 특징은 閣樓이다. 이는 중국 고대 방어성 건축양식의 기본 특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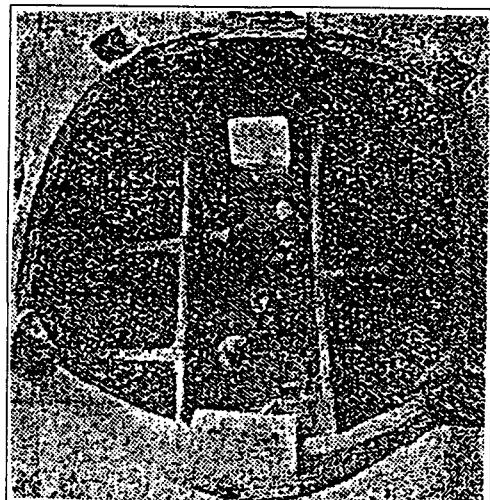


그림7 廣州出土東漢時期塢壁의 模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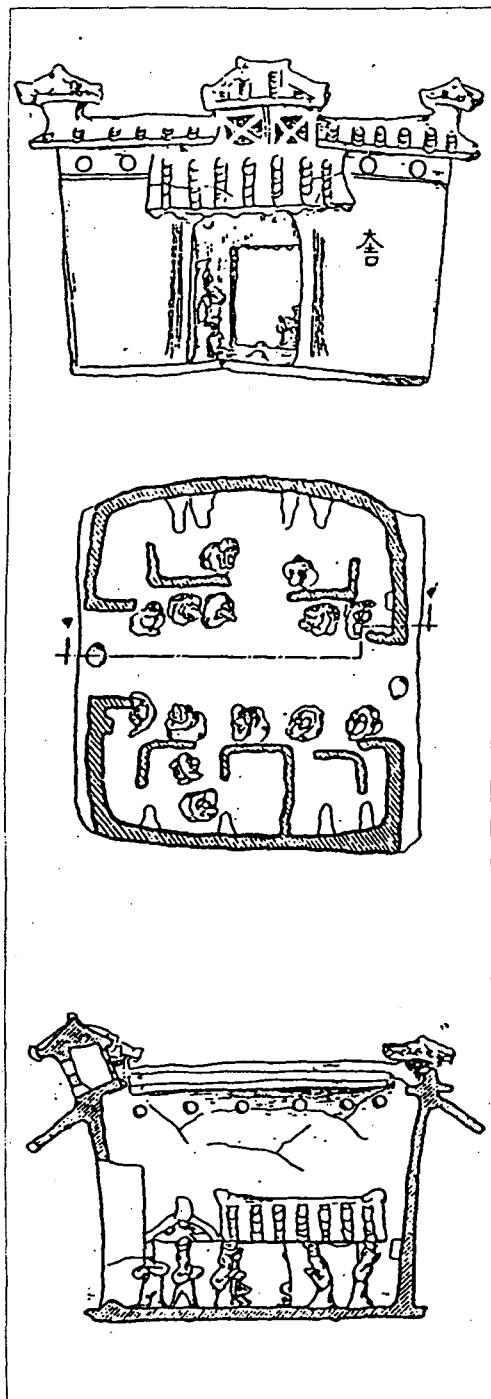


그림8 광주출토 동한시기 塉壁의 모형

1.2.4 山間堡壘式

漢代, 특히 兩漢과 東漢末의 戰亂기간 동안 豪強地主들의 塉壁은 이미 주택이나 장원의 범위를 넘어서 험준한 산간에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東漢末 이러한 종류의 塉壁은 더욱 큰 규모로 발전했다. 예를들면 《元和郡縣圖志》 卷五에는 宋武의 《北征記》를 인용하여 「少室山西有袁術固, 可容十萬衆, 一夫守隘, 萬人莫當」이라고 하였고 田壽의 오벽은 「入徐無山中, 營深險平敞地而居……百姓歸之, 數年間至五天餘家」¹⁶⁾라고 하는 등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塉壁의 대형화된 양상을 볼 수 있다. 山間堡壘式의 塉壁은 앞에서 언급한 塉壁들과는 엄격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위의 인용문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산지에 堡壘式의 대형 塉壁을 지은 塉主들은 대부분이 강력한 무력을 소유한 통솔자였다.

2. 塉壁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기능

墉壁은 地方의 豪族이나 豪強地主들이 자신의 안전과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이는 墉壁의 가장 특징적인 사회적 기능이다. 본문에서는 정치, 경제의 두 측면에서 塉壁의 사회적인 기능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2.1 塉壁의 政治的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능

墉主와 墉民의 관계는 엄격히 말해서 주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墉主는 塉壁 안에서 확실한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군사적 방어를 지휘하고 생산관리를 하는 이외에 교육의 시행과 법 규범의 제정 및 시행등은 墉主 스스로 주지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오벽은 자급자족의 사회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천하의 대혼란 속에서 刺史, 守令등 관리들이 관

16 《三國志魏志卷11.田壽傳》, 臺北, 鼎文書局新校本1979, 340-344쪽.

직을 버리고 도망치는 상황이 발생하자 호족들은 세력을 더욱 넓혀 중앙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 하고, 塢主들은 도망간 刺史, 守令등 지방 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만약 오벽이 파괴된 군현조직을 대신해서 운영하게 되면, 다른 郡縣들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수의 「」가 오벽으로 편성되었다.

塢壁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능은 군사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지방행정기구와 기층사회조직이 와해된 상태에서 오벽이라는 조직을 이용해 유민이 된 백성들을 재조직하여 보호하였으므로 오벽이 당시의 사회조직을 어느정도 보호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란기에 지방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오벽과 지방의 군정장관이라 할수 있는 塢主들은 모두 중앙정부가 국가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생긴 산물로서 그들 자체가 비타협적이고, 분열하여 할거하는 정치성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각자의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들의 행위가 사회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해 전혀 관심조차 없을 수도 있다.

2.2 塢壁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능

塢壁은 일종의 정치적 사회조직이며, 경제적인 단체이다. 永嘉의 난 이후, 토지겸병이 날로 심화되면서, 사회경제는 거의 마비상태가 되었다. 힘없는 백성들은 魏晉時代 이래로 생산조직을 오벽에서 보존함으로써 오벽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塢民들은 塢主의 지휘하에 생산활동에 종사했으며, 잉여의 노동력은 塢主에게 봉사했다. 이러한 경제상의 예속관계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생산의 회복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東漢·三國時代의 塢壁은 군사적인 성격이 비교적 강하고, 경제적인 성질은 약하다고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東漢·三國時代의 전란기는 위진시대와는 달리 전란기가 짧고 일시적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오벽을 장기간 또는 대형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魏晉時代는 長期戰의 변란기였으므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오벽이라는 조직이 필요했다. 東漢末期 豪强地主들의 급속한 발전과 농민들의 과산에다 전란이 끊이지 않자 豪强地主들은 자신들의 장원을 보호하기 위해 部曲家兵制를 이용했다. 部曲家兵은 경작과 전투를 결합한 豪强地主의 개인 武裝集團이며 이들이 塢壁의 구성원이 되면, 자연히 塢壁을 하나의 자원으로 변모시켰으며, 塢壁에 투신한 塢民들은 자연히 佃客이 되었다. 塢主는 塢民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또한 塢民은 塢主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었다. 塢民은 반드시 塢主에게 노역과 田租을 납부해야만 했다. 그 부담이 비록 크다 할지라도, 당시 생명조차 부지하기 힘든 전란속에서 塢壁은 상당히 안정된 생존환경이었기 때문에 塢民들은 기꺼이 협력했다.

十六國時代에 塢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저한 사회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즉 생존과 경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공급이 이루워져야 하기 때문에 塢壁은 군사, 정치적 기능외에 대부분은 생산단위이다. 예를들면 西晉初期의 废衰은 전란을 피하기 위해 禹山과 林虎山 등지에 塢壁을 건립해 생산활동에 종사했다. 이러한 현상은 十六國 시대 塢壁 조직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또한 塢壁의 경제적 기능은 조직적인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표출된다. 극도의 혼란기인 十六國 시대에 오벽은 생산발전, 민중의 정착화, 사회의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보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다.

끝으로 塢壁의 사회적 기능면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학자들은 塢壁의 사회기능을 언급할 때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감이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塢壁은 中原의 漢族이 北方 이민족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塢壁을 이민족 침입에 저항하고

전란을 방어하는 정의로운 사회조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塢壁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면이 많았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모든 塢壁이 이런 정의성과 적극적인 진보기능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적지 않은 塢壁이 당시의 혼란을 틈타 약탈과 지방분열을 목적으로 할거했으며, 이런 종류의 塢壁은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며, 무고한 백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들면 魏該의 塢壁은 魏濬의 塢壁을 계승하여 경영한 것으로 경영과정에서 다른 塢壁들과 협력하여 적을 섬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杜尹의 一泉塢를 무력으로 겸병¹⁷⁾하는 등 개인의 만족을 위해 사회분열만 야기시켰으니 魏該과 같은 塢主들이 경영하는 塢壁의 목적과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어떠했나 하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西漢의 塢壁은 변방지역의 주요한 군사방어 조직이며 변방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기도 하다. 王莽末年 전국이 동란에 휩쓸리자 지방의 향리조직은 파괴되었고 이에 대비해 정부측에서는 塢壁을 설립해 자구책을 강구했다.

東漢和帝에 이르러서는 姜族의 침입에 대비해 내지에도 塢壁을 건립했다. 東漢末年 黃巾의 亂으로부터 三國時代까지 동란이 끊이지 않자 백성들은 땅과 집을 잃고 유민이 되었으며 지방에서는 豪强大地主들을 중심으로 塢壁을 설립해 지역방위의 자위책으로 삼았다. 더구나 魏晉南北朝 시기와 같은 장기적인 전란기에 들어서면, 塢壁은 중앙정부이외의 또 다른 정치, 사회, 경제적 집단으로 변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17 《晉書卷63.魏濬傳附》, 1713쪽.

塔壁의 내부 구성원들은 전시에는 병사로 평상시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노동자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으므로 일종의 “兵農合一”의 사회경제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다.

塔壁은 전란기에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中華문화와 典章制度를 연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¹⁸⁾. 塔壁이 변방지역의 수비에서 내지지역을 방어하는 역할로의 변신은 중국의 秦漢盛世로부터 魏晉 전란기로의 전환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隋文帝楊堅의 천하통일은 장기간의 남북분열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위력의 기점인 塔壁의 소멸을 의미했다. 그러나 隋煬帝 말기 정치가 해체되고 변란이 끊이지 않자 塔壁을 거점으로 하는 지방무력단체가 또 다시 출현하게 된다. 중국 역사상 정치적 불안이나 전란이 발생하는 시대에는 언제나 塔壁이 등장하여 塔壁은 중국 역사의 변란과 늘 함께했다고 할 수 있다.

18 何啓民: <中古門第論集--五胡難華中的中原郡姓>, 臺北, 學生書局1978, 262-271쪽.

A Study on the Fort of Han and Jin period

Koo, Sung Hee
(ph. D. History of Qin and Han Period)

Abstract

The Fort of Han and Jin period was not only a defence-system of military purpose , but also a production-system of national economy , and a administration-system of the state as well . So it took a great role in the protection of social order and the preservation of Chinese culture.